

넉넉하여 남음

출애굽기 36:1-38

사람의 일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히 9:27)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하십니다. 그 일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다가 일생을 끝냅니다.(전 5:10) 어떤 사람은 그 소유로 자신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전 5:13) 어떤 사람은 그 소유를 쓰지 않아 녹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약 5:3a) 그런데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출 36:7) 이들은 자기가 받은 소유를 적절한 시간에 기쁜 마음(출 35:5a)으로 주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일생의 결산 때에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마 25:14-15, 19-21a)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마지막 결산 때에 칭찬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습관을 바꾸라

넉넉하여 남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자원해서 즐겁고 기쁘게 무엇인가를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드리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었습니다.(출 36:3b) 그러기에 넉넉하여 남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아침부터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을까요? 분명 낮에도 불평하고, 밤에까지 불평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분노가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심지어 부모님에게 조차 화를 내고 판단하며 삽니다. 절망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안 된다, 큰일 났다, 길이 없다하면서 절망합니다. 게으름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연하여, 그것이 그 다음 날에도 또 습관이 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녹슬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앓은뱅이는 물리적,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앓은뱅이였습니다. 절망하는 것, 구걸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10)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습관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는 절망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놀라운 인생, 영향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이 바뀌게 된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저녁에 그렇게 끝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습관을 잘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습관을 보고 자라니, 아빠 엄마의 습관이 아침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서로 격려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품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넉넉한 인생이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주 앞에 결산할 때 남는 인생이 될 터이니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2. 은혜를 구하라

넉넉하고 남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백성들이 예물을 넉넉히 남도록 드리는 장면이 있고 성막을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막의 덮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의 덮개는 네 개입니다. 첫 덮개는 화려한 색상, 그 위엔 흰 염소 털, 다음에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모든 덮개가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덮개가 다 은혜의 덮개입니다.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은혜의 덮개입니다. (출36:8,14,19)

은혜의 덮개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습니다.(눅 2:40)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어 있었다는 말씀 후 바로 전개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덮이어 있어야 예수님처럼 넉넉하여 남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알아 담대하게 큰 은혜를 구하였고,(시31:8-9a, 31:15, 31:19) 모든성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31:23a-24)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는 점잖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나병환자는 아주 점잖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고칠 능력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의 사랑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를 듣는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불쌍한 나병환자여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확실히 아시고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 난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5=7” 이것만 계산해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2+5+하나님=무한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습관을 바꾸고, 은혜를 구하면 넉넉하여 남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 나눔의 시간 ○

1.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위하여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3. 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4.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기도제목들이 있는 지 나누어 봅시다.